



뉴스레터
16호(1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3
2. 발간활동	9
3. 교수 연구활동	10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12

연구소 소식

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17
2. 제2기 IFES 북핵아카데미	20
3. 도서관 소식	21
4. 연구소 동정	25
5. 언론 속의 IFES	27
6. 예정사항	34
7. 안내사항	35

연구활동

연구활동

1. 학술활동

국내학술회의

제72차 통일전략포럼 (2023. 12. 1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13일(수) ‘제72차 통일전략포럼’(웨비나)을 개최했다. ‘2023년 한반도 경제평가 및 2024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통일전략포럼은 △한·미·일 △북·중·러 △남북관계 등 총 3개 세부 주제에 대해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가 ‘한·미·일 협력 구조 변화의 작용·반작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마상운 가톨릭대 교수(미국 입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일본 입장),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한국 입장) 등이 각각 토론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이 ‘북·중·러 밀착의 현재, 동인,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중국 입장),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러시아 입장), 이철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북한 입장) 등이 각각 토론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북한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CNK센터장 등이 각각 토론하였다.

통일전략포럼을 주최한 이관세 소장은 “2023년 한반도 경제평가 및 2024년 전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자리였다”며, “2024년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2023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 발표/토론 주요내용

(제1세션) 14:00~15:00 '한·미·일 협력 구조 변화의 작용·반작용'

발표: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토론: (미국)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일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한국)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표·토론 내용 요약 〉

- ◎ 한국, 미국, 일본(이하 한미일)은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국제질서가 대 조정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합의문을 채택
 - ▷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 목적
 - ▷ 한국 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발생한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일 3국이 공동 가치와 국익을 지키고, 역내의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포괄적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기로 합의
 - ▷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동북아 세력경쟁과 진영화, 한미일 가치 연대, 자유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진영의 충돌,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한중 간 국익과 가치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역사적 필연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나타냄.
 - ▷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중러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그 결과 동북아의 진영화와 신냉전 고착, 남북관계 악화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안보적 보복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정적으로 평가
-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3국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자국의 위협인식과 국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간극이 존재
 - ▷ 동맹의 성립조건이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에 따라 형성된 군사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미일의 안보협력 가능성과 전망은 한미일 협력의 반작용인 북중러의 총합적 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 역량, 인지되는 공격 의도 등 4개의 요소에 따라 변화됨.
 - ▷ 한국은 북핵 위협을 최우선시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수준 증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 탐지, 추적 능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
 -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등 범세계적인 관여정책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대중 전략경쟁을 수행하는 핵심적 자산 및 소다자 동맹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 ▷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대북·대중 위협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계기로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대만 유사시 군사적 기여를 강조하며 미일동맹 내에서 역할 확대 도모

(제2세션) 15:00~16:00 ‘북·중·러 밀착의 현재, 동인, 그리고 전망’

발표: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토론: (중국)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러시아)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북한) 이철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 발표·토론 내용 요약 〉

- 북한, 중국, 러시아(이하 북중러)는 각기 서로 다른 비전과 국제정세 인식,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3각관계 형성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며 오히려 북중, 북러, 중러의 양자관계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 (중러관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단일 패권질서가 수립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합작’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음.
 - ▷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발발 이후에도 양국의 우호관계는 여전히 유효
 - ▷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는 대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UN의 원칙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리외교를 전개
 - ▷ 2023년 3월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러우전쟁의 정치적 해결, UN 헌장존중, 서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수준의 대러 경제지원 노력을 하고 있음.
 - ▷ 러시아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지만, 미국에 대항하고 국내정치적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북중관계) 한국전쟁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현상유지에 입각해 불필요한 연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력 소모를 지양하는 것이 기본 입장
 - ▷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약소국의 이익과 제3강대국의 전략적 이해에 연루되어 막대한 손실을 경험했지만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에 두려는 원칙과 노력은 여전히 유효
 - ▷ 2018~19년 남북미 비핵화 협상 시기 북중정상회담이 다섯 차례나 개최된 것과 달리 현재 북중간 정상회담 소식이 부재함. 이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북중이 상호 우호적인 태도를 강화하면서도 실제적인 협력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
- (러북관계)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할 반미외교 연대 형성,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상호 군사협력의 필요성, 한반도 문제에서의 입지 강화에서 공통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
 - ▷ 서방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 주도 질서에서 다극질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긴밀히 움직이고 있음.
 - ▷ 러시아는 러우전쟁의 장기화, 참호전에 대비한 재래식 군수품(munition)을 북한으로부터 조달
 - ▷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찰위성, 핵잠수함 등 선진 군사기술 확보를 기대하며 러시아와의 정치군사적 협력과 연대를 지속
 - ▷ 러우전쟁의 향방은 예측불허이지만 최소한 극동지역 혹은 점령지역 복구에 필요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 유입 등 러북 간 경제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제3세션) 16:15~17:15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북한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발표: 정영철 (서강대 교수)

토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음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CNK센터장)

〈 발표·토론 내용 요약 〉

- ◎ 하노이 이후 북한은 신냉전으로의 국제질서 인식,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제휴 강화,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통해 체제생존과 자력강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에서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협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공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언급하였음.
 - ▷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조심화에서 북한은 경제살리기 노선에 집중하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의 강화, 중국을 중심으로한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정리해 보임.
 - ▷ 남북관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최소한 현 정권에서는) 현상유지 혹은 남북관계에 선 양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결탁구조에 대응하여 북중러 결탁강화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
 - ▷ 한반도 미래의 예상경로는 (1) 안보딜레마의 가속화와 일상화; (2) 기능주의적 방법의 부활; (3) 북한의 핵억제력 인정과 상호확증파괴의 합의; (4) 북한민주화의 길;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제도적 합의 등을 예상할 수 있음.
-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김정은은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의 핵심이었던 미국 중심의 외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코로나19 이후 북중무역 정상화, 군사적으로는 핵보유를 헌법에 수록하고 SLBM,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하에서 북한 대외정책의 초점은 북미관계였지만, 북한이 현 국제체제를 다극체제라고 인식하면서 북중, 북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
 - ▷ 군사적 긴장 조성 이후 협상국면 전환이라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북미 혹은 남북관계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 2023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은 9억 2,395만 달러, 수출은 1억 3,509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인 2018~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으며, 북중 간 임가공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2023년 2번의 실패 끝에 11월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을 발표하고 향후 추가 위성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 2024년 남북관계 전망
 - ▷ 2024년 북한의 대외, 대남정책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하반기 예정된 미국 대선 등 주요 국가의 선거(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이 예정됨) 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 ▷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북한으로서는 임기 말 미국 정부와 협상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이후를 기대하면서 기존의 강경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존재
 - ▷ 최소한 미 대선까지 9.19 군사합의 규정력 약화 등으로 남북 군사충돌 가능성이 존재

포럼

제4차 삼청포럼
(2023. 12. 1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대학원대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12월 16일(토) 통일관 정산홀에서 제4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130여 명이 참석한 동 포럼에서는 박철언 이사장(한반도복지통일재단)이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북방정책의 추진 배경과 의미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과정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향후 남북관계 대처방향에 대한 논의와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박철언 이사장은 “북방정책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외교관계에서 북방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공산권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한 자주적 외교의 사례이며 북방으로의 우회를 통한 평화 통일의 모색”이라고 설명하며, “대북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대중·대소 관계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협정에서 진의(眞意)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제4차 삼청포럼 발표 주요 내용

1. 북방정책의 입안과 추진

- 북방정책 추진의 시대적 배경
- 북방정책의 목표
- 7.7 특별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 북방정책 추진과 미국과의 관계
 - 냉전 종식과 미국의 입장 변화
 -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 관계
-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과정
 - 헝가리와 수교 과정
 - 소련과의 수교 과정
 - 중국과의 수교 과정
 -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과정
- 북방정책에 대한 비판과 임기 종반기의 혼미
 - 노태우정부 종반기의 북방정책 혼미와 퇴조
 - 북방정책의 역사적 의미

2.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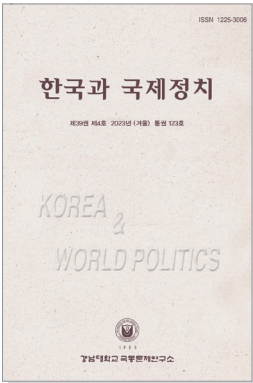
3. 대통령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역동적 리더십

4.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약간의 소견

2. 발간활동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4호 2023년 (겨울) 통권 123호)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39권 제4호(겨울)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목 차 >

- ◎ 초 광역적 공간 전략의 정치경제: 메가시티 구상의 의의와 과제를 중심으로
-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 류인석(대한민국 육군, 외교학 박사)
- ◎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 이상우(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 ◎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 김연철(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한국 사례의 비교 연구
-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3. 교수 연구활동

학술활동

조진구 교수

1. 2023.12.18.(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제36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패널 참가 발표

김상범 교수

1. 2023.12.5.(화)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핵 무장국을 대하는 진보와 보수의 새 접근 토론회” 토론

최영준 교수

1. 한국행정연구원, 부처 연구사업 자문 참여
 - 일자: 2023.12.14.(목)
 - 내용: 통일준비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최중현 연구소 주관 “Trans Pacific Dialogue” 참석(美버지니아주 미들버그)
 - 일정: 2023년 12월 4일 ~ 6일
 - 내용: 북한 세션에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여 NCG 설치 노력을 평가하고, 보스토치니 러 · 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억제력 강화가 제일 중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2. 2024년 국제 정세 전망 웨비나 참가(Institute for Global Economy 주관 웨비나)
 - 일자: 2023.12.14.(목)
 - 내용: △우크라 사태 △가자 사태 △북핵 문제 등 2024년 국제 정세 전망 웨비나에 토론자로 참가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2023.12.18.(월) YTN (뉴스큐) 인터뷰, “북한, 올해 들어 5번째 ICBM 발사...배경과 전망은?”

조진구 교수

1. 2023.12.3.(일) YTN 인터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8년 만에 복원...이번 달 서울 개최
2. 2023.12.15.(금) YTN 라디오 출연, 신윤의 뉴스 [정면승부] 조진구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 일부 파벌이 아닌, 일본 정당 전체의 문제”
3. 2023.12.21.뉴스1 인터뷰, 정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고수하지만... 커지는 부담
4. 2023.12.31.(한일민족문제연구 제45호 발간) 논문 등재,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을 둘러싼 외교교섭 - 한국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
5. 민족화해 제126호(2024년 1/2월호) 기고
- 내용: 한일관계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 일자: 2023.12.4.(월)
- 내용: “2023년 우리 외교의 명 장면” 제하에 4월 방미,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NCG 설치 등을 통한 안보 강화, 그리고 경제 현안 해결 및 신성장 동력을 위한 1년간의 노력을 평가
2. 코리아 타임스, 기고
- 일자: 2023.12.20.(수)
- 내용: “Highlights in Korea's Foreign policy in 2023” 제하에 4월 방미,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NCG 설치 등을 통한 안보 강화, 그리고 경제 현안 해결 및 신성장 동력을 위한 1년간의 노력을 평가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2023.12.13.(수) 한국일보(정진황의 앵글) 인터뷰, “한반도 외교 선명성보단 정교함 가져야 운신 폭 넓다”

권기원 초빙교수

1. 2023.12.26.(화) 아주경제, “상속세제 지원 확대로 기업 활력 키우자”, 칼럼 기고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11/22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성공 주장

- 조선중앙통신,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

• 12/16 북한, 중국 베이징서 북중 고위급 외교회담... 코로나19 이후 첫 정치 목적 방중

- 북한 외무성 부상 박명호와 중국 외교부 부부장 쑨웨이둥 회담
- 회담에서 양측은 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내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나가고 양국 간 전략적 협조 강화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해짐.
- 북한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중국에서 정치사안을 논의한 것은 2020년 1월 코로나19 국경 패쇄 이후 처음

• 12/18 북한,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 조선중앙통신, 최대정점고도(6,518km)와 발사거리(1,002km)을 고려할 때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다고 주장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 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라며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12/21 IAEA 국제원자력기구, 북한 영변 실험용 경수로 완공 및 시운전 정황 성명

-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 “북한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배수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경수로의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분석”

• 12/27 북한, 연말 전원회의 시작

- 김정은 위원장, 제8기 제9차 전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올해 당 국가정책 집행상황 보고
- 올해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의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 의정이 상정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 “2023년은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 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규정

미국

- **12/11 미국 연방의회조사국, “북핵 폐기 대가 한계...핵협상 회의적” 평가**
 -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기간 봉쇄했던 국경을 열고 약 4년 간의 자발적 고립을 벗어나 김정은 총비서가 원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
 -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에게 모든 유인책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진해서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중론
 - 미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핵 협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특히 제재 완화의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경제적 도움 역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최근 더욱 강화하며 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12/15 미 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 2024년 국방수권법안(NDAA) 가결**
 -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전년보다 약 3% 증가한 8천886억 달러(약 1천149조)로 책정
 - 한국 관련 내용으로는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워싱턴선언 이행 및 심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 **12/16 한미 NCG 2차회의 공동성명 “北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
 - 한미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등의 NCG 과업이 1차 회의 이후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양국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
- **12/18 美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SSN-780) 부산 해군기지 입항**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군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 **2/26, 美 바이든 대통령, 국방수권법안 서명... 주한미군 규모 유지 및 워싱턴선언 이행**
 - 서명된 국방수권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 바이든 대통령, “이 법은 향후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권한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일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을 지원한다”고 설명

중국

- **12/7 중국, EU와 정상회담**
 -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과 유럽은 상호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양측 인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 EU 미셸 상임의장, “EU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관계구축을 희망”한다고 언급
- **12/13 시진핑 주석, 베트남 국민방문 “전략적 소통·정치적 기반 강화 기대”**
 - 양국은 15주년을 맞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양국 공동체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촉구
 - 시진핑 주석, “양국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높은 정치적 신뢰, 실질적인 안보 협력, 깊은 상호이익과 협력, 강력한 여론 기반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
- **12/26 시진핑 주석,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에 대만과 통일 의지 강조**
 - 시진핑 주석,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업적을 추진하는 것은 마오쩌둥 같은 앞세대 혁명가가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자 현재 중국 공산당원의 엄숙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언급
 - 시진핑 주석,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대세, 대의, 민심의 방향”이라며 “조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필연적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

러시아

- **12/15 푸틴, “러시아 목표 달성 전엔 우크라이나에 평화 없어”**
 -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기자회견 겸 국민 소통 행사인 “올해의 결과”에서 “경제성장 3.5%, 실업 3%,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구축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없다”고 밝힘.
 - 푸틴은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
 - “러시아는 미국과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없다.
- **12/15 北 방문 러 연해주 대표단 귀국**
 - 러시아 연해주 정부 대표단, 관광·문화·스포츠 교류 활성화 추진 목적으로 4박 5일 방북
 -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내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동계체육대회에 북한 소년·소녀 선수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

일본

- **12/20, 일본 해상자위대, 한미 공군과 북한의 마사일 대응 연합훈련 실시**
 -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미군의 B-1B,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참여
 - 올해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13번째이며 3국의 연합공중 훈련은 두 번째

연구소 소식



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2023년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평가

[사업개요]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은 북한·통일학 분야 연구를 위한 외국 연구자 학술지원 프로그램으로 ①북한·통일 연구 국제화 실현, ②북한·통일 관련 공공외교 실현, ③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한국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2020년부터 통일부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펠로십」 및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펠로십은 해외 전문 인사 및 연구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북한·통일 분야에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은 해외 현지에서 연구기관(자)들이 북한·통일 분야에서 심층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 펠로십 사업 추진현황]

2023년 선발된 총 6명의 펠로들에게는 북핵 아카데미와 같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기존 연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워크숍(3회) ▲현장학습 및 유관기관 방문(3회) ▲전문가 특강(10회) ▲중간(3회) 및 최종연구발표회(4회) 등 체계적·실질적 연구자 관리와 맞춤형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올해 펠로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연구주제로 진행되었다.

성명	연구기간	국적	연구주제 (*최종연구보고서 제목)
진호	23.02.20. ~ 08.19.	중국	한국의 외향 프론티어에서 중국의 내향 프론티어로: 북중 국경지대 연변의 국경 만들기과 통치(1945-1970)
양만봉	23.02.23. ~ 08.22.	중국 (홍콩)	방기 불안과 동맹 강압외교: 북중 관계(1992-2022)의 사례 연구
다하라료	23.03.27. ~ 09.26.	일본	김정은 집권 시기 농업법제의 주요변화와 그 특징
전령현	23.04.03. ~ 10.02.	중국	전두환 정부 초기 대(對)비동맹 외교의 전개와 대북정책: 정통성의 관점에서
안드레이 코브시	23.05.08. ~ 11.07.	러시아	북한의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에 대한 시사점
비앙카 트리포이	23.06.16. ~ 12.15.	미국	“조국의 꽃봉오리”: 어린이, 가족 그리고 1950~60년대의 북한 국가

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2023년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사업 추진현황]

2022년부터 시작한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사업은 해외 소재 국책기관, 싱크탱크, 해외 현지 연구자 및 그룹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에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미래 구상 방안 ▲‘담대한 구상’ 관련 국제사회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관련 공공외교 강화 방안 ▲국가별 내부통합사례 연구 ▲북한의 외교관계와 한국의 대응 등에 대한 연구 주제로 공모한 결과 최종 선발된 6개 기관·그룹·연구자들의 과제별 중간·최종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수정·보완을 거쳐 수준 있는 연구결과물을 생산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호주 디킨대의 ‘(Re)engagement with North Korea: Harnessing Past Experiences for Future Opportunities’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질적 향상과 국내 학술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유형	연구책임자(소속)	연구기간	국적(소재지)	연구주제(* 최종연구보고서 제목)
개인 연구자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23.04.06. ~ 11.05.	미국	김정은 시기 북한의 원격교육 발전과 현황
개인 연구자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23.04.14. ~ 10.13.	중국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대북 정책
연구 그룹	김애화 (천진사범대)	23.04.06. ~ 11.05.	중국	비대칭 남북관계 연구
연구 그룹	기다 고빈다사미 (말라야대)	23.04.06. ~ 11.05.	말레이시아	한반도에서 아세안의 역할 재상상하기: 주변적 행위자에서 핵심 축진자로
연구 기관	나자닌 자데커밍스 (디킨대)	23.04.06. ~ 11.05.	호주	북한에서의 미래 기회를 위한 대화와 계획
연구 기관	스티븐 데니 (비엔나대)	23.04.06. ~ 11.05.	오스트리아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과제와 기회: 독일과 한국의 비교 분석

연구소는 2020년부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가와 기관들 한반도 및 북한·통일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를 높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평가회 (2023. 12. 18)

지난 12월 18일(월) 12:0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라운지에서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정진 경남대 서울부총장 등 주요인사와 펠로십 수료자와 관련 실무진, 교수진, 그리고 석박사 학위과정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본 평가회는 2023년도의 펠로십과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점에서, 올해의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기존 펠로간 유대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박재규 총장은 인사말에서 “북한·통일 문제에 천착(穿鑿)하는 해외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공공 외교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북한·통일 연구에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펠로십 수료자 대표 전령현(중국,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과 석박사 학위과정생 대표 사만다 마르코스(미국,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는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북한·통일 문제를 몰입하여 연구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양한 연구 동료 및 전문가와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관세 소장은 “펠로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이 수료 및 졸업 후에도 한반도 문제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오찬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며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했다.



2.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 종강 및 수료식 (2023. 12. 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2월 7일(목) 대회의실에서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이관세 소장은 “아카데미 강의가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수료식 기념 촬영 >

2023년 9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1강 과정(온·오프라인)으로 개설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핵 위협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대주제 아래 ‘북한 핵기술 평가’, ‘핵 방호체계 구축’, ‘한국 핵무장 찬반 전문가 토론’ 등 당면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동시에 해결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는 강의들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생들은 “북핵문제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공유받아 폭넓은 이해에 도움이 됐다”,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희망을 보았다” 등의 수료 소감을 밝혔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북한, 한반도 및 동북아 이슈들과 관련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3. 도서관 소식

추천도서

The Coming Wave



저 자: Mustafa Suleyman

출간일: 2023. 9. 5

Mustafa Suleyman, *The Coming Wave: Technology, Power and the 21st Century's Greatest Dilemma*, New York: Crown, 2023.
(ISBN: 978-0593593950)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를 제압한 지 6년여 만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였다. 2022년 11월 말 ChatGPT가 세상에 선을 보인 것이다. 이 인공지능 챗봇은 우리가 던지는 그 어떠한 질문에도 매끄러운 답변을 쏟아낸다. 번역을 척척 해내는 것은 물론, 각운(脚韻)을 맞춘 시(詩)도 즉석에서 지어내며, 심지어는 상당한 코딩 실력까지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집단이 있었다. 2022년 알파고의 뒤에는 오픈AI가 있었고, 2016년 ChatGPT의 뒤에는 딥마인드(DeepMind)가 있었다.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살펴볼 책의 저자 무스타파 슐레이만(Mustafa Suleyman)이다. 그는 오랫동안 AI 윤리와 AI 안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으며, 최근 2022년에는 오픈AI의 여러 경쟁사들 중 하나인 인플렉션AI(Inflexion AI)를 창업하기도 하였다. 이제 그가 집필한 책은 2023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출판된 책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되었다.

이 책은 기술로서 인공지능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저자는 일반목적기술 내지 범용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의 확산과 그에 따른 - 의도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은 - 결과들을 ‘물결’ 또는 ‘파도(波濤)’에 비유하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파도(the coming wave)’는 두 가지의 유망하고 강력한 범용기술, 즉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이들에 공통된 특징들(다용도성, 초진화성, 비대칭성, 자율성)이 이 파도를 막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보인다.

3. 도서관 소식

이어서 저자는 ‘다가오는 파도’의 - 특히 정치적인 - 함의에 집중한다. 파도가 야기하는 권력의 재배분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되는가? 기술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들 중에서는 특히 국민국가와 현재의 지정학적 질서에 대한 위험이 강조된다.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국민국가가 약화될 수 있으며, 국제질서에서 권력의 집중화와 분산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험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재난’과 ‘디스토피아’의 딜레마로 요약된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의 무제한적 추구를 통하여 재난적 위험들을 양산하거나, 아니면 재난적 위험들을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감시 사회와 같은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 딜레마를 피하는 방법, 다시 말해 재난과 디스토피아라는 양 극단의 사이에 마련된 대단히 좁은 길로서 ‘봉쇄(containment)’ 개념을 제안한다.¹⁾ 그것은 기술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술적, 사회적, 법적 기제(메커니즘)의 상호 연결된 집합(11면, 37-38면)으로 정의되는데, 따라서 봉쇄는 특정한 단일수단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여러 수단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해에는, 하나 또는 한 유형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겹의 수단들로만 넉넉히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여러 수단들에는 기술적 안전장치나 법적 규제 외에도 문화적 환경이나 사회적 의지와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²⁾

바로 이 봉쇄 개념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성으로 광고되고 있으므로(11면) 책에 대한 총평 또한 바로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이뤄질 수 있다. 이 책의 의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단초들을 ‘봉쇄’라는 명칭 하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개별 기제와 관련된 방안들의 체계적인 제시나 여러 기제 간 상호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며, 저자의 의도도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 듯 보인다. 그에 따라, 단지 봉쇄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must be possible)’(제13장의 제목)와 같은 규범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 이상의, 체계적인 기술(記述)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봉쇄가 유용한 개념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라 이 책이 AI 안전·윤리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박서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영단어 ‘containment’는 어원적으로는 대상을 일정한 경계 이내에 머무르도록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용법(특히 George F. Kennan의 용법)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그것을 ‘봉쇄(封鎖)’로 풀이하였으나, 그것을 ‘억제’나 ‘방지’와 같은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2) 봉쇄를 구성하는 10개의 기제들로는 ①기술적 안전, ②감사(監査), ③개발속도 저감 및 시간 지연 수단, ④기술 자체에 삽입된 통제수단, ⑤조직·기업 유인의 적절한 설계, ⑥정부(개별국)의 규제, ⑦국제조약 등 국제협력체계, ⑧ 학습과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 ⑨대중적 의지, ⑩이상의 요소들 간 조화와 상호강화가 거론된다.

■ 신규도서 안내

극동문제연구소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 및 국제관계 등에 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도서 및 북한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구입한 국내외 발행도서(19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구입도서 목록(19권)

연번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몽골의 체제전환과 동북아 평화지정학	백지운 외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2	박정희의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10년, 그리고 4대 핵공장과 백곰 유도탄	이경서	이른아침	2023
3	通訳者と戦争犯罪	武田珂代子	みすず書房	2023
4	시진핑탐구	유상철	리사	2023
5	DMZ의 역사 :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한모니까	돌베개	2023
6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독일사	제임스 로즈	진성북스	2023
7	경계 너머의 삶	베네딕트 앤더슨	연암서가	2019
8	핵의 변곡점 : 핵물리학자가 들여다본 북핵의 실체	시그프리드 헤커, 엘리엇 세르빈	창비	2023
9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 대북정책의 뉴 패러다임	김계동	명인문화사	2023
10	포스터로 본 일제강점기 전체사	최규진	서해문집	2023
11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 서울에서 띄우는 평양 소식	주성하	싱긋	2023
12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이삼성	한길사	2023
13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에 관한 연구	최용철 외저	법문사	2023
14	신시대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장장	역락	2022
15	새롭고 위대한 신시대 당 건설 프로젝트 심층 추진	왕징칭	역락	2022
16	전면적인 중엄치당에는 마침표가 없다	장잉웨이, 궁모우훙	역락	2021
17	인민중심의 새로운 발전 이념 고수	리페이린	역락	2022
18	중국 특색 사회주의 농촌 활성화의 길로 나아가다	천시원, 웨이허우카이, 송야핑	역락	2021
19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구축	차이팡, 장쇼우징	역락	2021

3. 도서관 소식

■ 2023년 도서관 방문 설명회 현황(총 25회 301명)

2023년 한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은 국내외 연구자, 학생, 정관계 인사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총 25회(301명)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국내외 저변 확대와 물적·인적 네트워크 형성, 학문적·정책적 성과 공유를 통한 북한·통일 연구의 활성화와 동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북한 발간 특수자료, 북한·통일 관련 국내외 자료와 연구 성과물, 저명 인사들이 기부한 자료와 정보 및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도서관의 자료 공유와 활용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연구소 동정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체 교수회의 (2023. 12. 18.)

- 일자/장소: 2023년 12월 18일(월),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외 연구소 교수 전원
- 내용: 2023년 연구소 사업추진 실적 및 2024년 계획 공유

■ 우크라이나 씽크탱크 “Ukrainian Prism” 전문가 방문 간담회 (2023. 12. 20.)

- 일자/장소: 2023년 12월 20일(수),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상만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디올렛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상대측 대상자 정보>
- 내용: 우크라이나 전황 및 관련 정세 동향 정보교환, 토의

■ 신봉길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 ‘조선의 무희’ 그림 기증 (2023. 12. 19.)

- 일자/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극동문제연구소
- 기증자: 신봉길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
- 참석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희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신봉길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



4. 연구소 동정

■ 202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직개편(2024. 1. 1.)

-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 조직개편 내용

1) 지역별 연구센터 개편

- 일본센터 → 일본연구센터 (조진구 센터장)
- 중국센터 → 중국연구센터 (이상만 센터장)
- 북핵센터 → 북핵연구센터 (이병철 센터장)
-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폐지) → 북한연구센터 (임을출 센터장)
- 미국연구센터(신설) (정재욱 센터장)

2) 분야별 업무지원실

- 기획실 → 기획홍보실 (이형중 실장)
- 국제협력실 → 국제협력실 (딘올렛 실장)
- 연구실 → 연구실 (조진구 실장)
- 행정관리실 → 행정관리실 (모영환 실장)

5. 언론 속의 IFES

■ 제72차 통일전략포럼 결과(2023. 12. 13)

“현재 한반도 정세와 전망은... 경남대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열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 제공: 연합뉴스>

※ 연합뉴스 외 총 18건 언론보도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뉴스1 인터뷰 전문(2023. 12. 22)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은, 내년 트럼프 귀환하면 제일 먼저 축하할 것”

(인터뷰) “내년 북미 모두 대화 관심 없어...韓, 중러와도 관계 도모해야”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2023.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북한이 내년에도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 총장은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국제 정세에 영향을 줄 중대 변수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장은 김 총비서가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빠르게 발신하는 국가 지도자들 중의 한 명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현 행정부와 정세하에서는 내년에도 미국과 북한은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관리 모드’를 유지하고, 북한 역시 한미의 대북 강경 기조에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을 펴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3각 밀착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총장은 다만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강화는 “한국의 대중, 대러, 대북 전략적 유연성 활용 공간 축소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진전을 제약시킨다”면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강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박 총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올해 북한이 보인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남북 관계, 미북 관계는 차단하고 신냉전 구조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중러와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협상을 통한 대미 관계 개선이라는 방향 축을 전환한 것 같다.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제재와 핵무력 강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이었던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윤 정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 한국은 올해 워싱턴 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강화했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대북 핵 억지력을 강화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소홀하게 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반작용이 야기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남북 관계도 악화됐다. 확장억제의 신뢰도가 안보 공약의 강화나 북한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무한히 강화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한반도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이 러·우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사가 없고,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내년 국제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다.

5. 언론 속의 IFES

- 대선을 앞둔 내년에는 북미가 상호 대화에 관심을 보일까.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경제 문제이고 외교 문제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분야 관심은 미중 전략적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집중되어 있어 북한 문제는, 7차 핵실험이 아니라면 미국 행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다. 북한 역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화의 모멘텀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에 북한은 트럼프의 귀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까.

▶ 김정은이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빠르게 발신하는 국가 지도자들 중의 한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의 만남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미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제2의 '연서'(love letter)를 보낼 수 있고 여기에는 트럼프를 평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트럼프 역시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를 복기하면서 트럼프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포함 국제질서에서의 많은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평양과 워싱턴을 직접 연결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정교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 박계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사진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23.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대화에 관심이 없다면 내년도 북한의 대외 전략과 미국의 대북 스탠스는 어떻게 전망하나.

▶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련 한미 공조가 견고하다. 이는 북한이 한미관계에 균열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의 대북 강경 기조에

‘강(強) 대 강(強)’ 맞대응 전략을 지속·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내년 11월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테니 북한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거나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철저히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리 모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북러 밀착이 두드러졌다. 내년에도 북중러 3각 밀착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대응 차원에서 북중러 연대는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북중러 사이에는 누적된 불신이 있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연대이기 때문에 나름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북한,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지금도 북러와의 군사적 협력에 소극적이다. 북러와의 군사 협력 강화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국가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유지하는 데에 3각 밀착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중재 역할 정도를 희망하는 것 같다. 3자보다는 북중, 북러와 같이 양자 관계를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 들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대북 경제 원조와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북일 접촉설도 나온다. 일본이 북한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일본이 주변국의 위협을 구실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할수록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한 북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하는 것은 과거 청산을 통한 일본의 경제협력인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한 일본의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도 기대할 수 없다.

- 내년 정부의 대북정책에 제언한다면.

▶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강화하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북핵 억제력을 구축하면서 북중러와도 호혜적 관계를 도모하여 국가안보 위협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조 강화는 한국의 대중, 대러, 대북 전략적 유연성 활용 공간 축소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진전을 제약시킨다. 북중러 밀착을 통한 냉전적 대립 구조가 심화해 군사적 긴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남북 직통전화와 군사 통신선 가동이 시급하다. 동시에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미중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2023.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로 중국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한중관계의 해법은 무엇인가.**

▶한중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국익 우선의 원칙론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조급하게 미중러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 미중러와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존 가능한 국가'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 내년 북한의 국경 봉쇄가 더 완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경제성장과 국방력 강화 중 어디에 더 집중할 것 같나.

▶내년에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와 군비 증강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나름대로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개방해 관광사업 재개와 경제협력의 확대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내년에 주력할 무기체계는 무엇일까.**

▶지난 8차 당 대회 시 제시한 국방력 강화 사업에 미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고래급(구소련 G급) 신형 잠수함과 핵잠수함 개발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 실발사, 극초음속미사일 추가 개발, ICBM 정상각도 발사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인 등 첨단무기 분야의 기술적 진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 '대한민국' 호칭 사용은 남한에 대한 대립각 세우기라고 본다. 김정은 체제는 '민족제일주의'에서 '국가제일주의'로 전환하고, 남북 관계를 '두 개 국가론'으로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조평통 같은 대남기구도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국가 간 외교로는 접근이 어렵다. 민족 내부 관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를 부정하면 남북 관계에서 자기 결정권을 갖기 어려워진다. 이번 북한의 '대한민국' 호칭 사용도 남북 관계를 포괄적 '외교'의 범주에 넣으려는 항구적 전략 변화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 북한이 딸 김주애를 지속 노출하고 있다.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애가 중요한 군 관련 행사에 김정은과 함께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현상을 보면 김정은은 주애를 내세워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상을 각인시키려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대 세습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딸을 내세워 대내적으로는 백두혈통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주애의 등장을 단순히 전공업무를 가진 당국자 역할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공개적인 행사에 동행하며 단독 사진을 찍고 최고지도자들에게만 사용하는 극존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애가 상징적 백두혈통으로 남을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는 앞으로 그가 보여줄 능력과 자질, 그리고 아버지 김정은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을 것이다.

- 주애가 만일 후계자 후보군에 속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구축 과정을 미뤄보면 후계자가 밟아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다. 수령의 영도 계승성이 이루어지도록 당의 영도절차(후계자 공식 내정)를 밟아야 하고 당·군 지도부를 후계자 중심으로 결속하기 위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또 주애에 대한 대대적인 위상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을 비롯한 국가전략 노선에 대한 해설권을 가져야 하고, 대남사업에 대한 지도권도 가져야 한다.

6. 예정사항

제73차 통일전략포럼 (2024. 1. 10.)

- 주제: 2024년 북한 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
- 일자: 2024년 1월 10일(수)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1층 대회의실, 온라인(zoom)

북한연구센터 북한심층연구 라운드테이블 (2024. 1. 23.)

- 일자: 2024년 1월 23일(화)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주제: 김주애는 과연 후계자 가능성이 있나?

제5차 삼청포럼 (2024. 1. 31.)

- 일자: 2024년 1월 31일(수)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주제 : 대만 총통 선거 결과와 양안 관계 전망
- 발표자 :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명예교수

7. 안내사항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가입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연회비 납부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재 가 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